

‘화순적벽’ 버스투어 전면 확대

화순군, 21일부터 운행 시작
버스투어 기준 3일→5일로
예약 필요없는 셔틀버스도 운행



화순적벽 관리권을 넘겨받은 화순군이 올해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확대 운영한다. 화순군 이서면 적벽이 있는 동북호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화순적벽(赤壁)’ 관리권을 화순군이 갖게 되면서 올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적벽 관광을 활성화한다.

화순군은 21일부터 오는 11월26일까지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벽 버스투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통제됐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일주일에 사흘만 개방했다.

지난해 일부 기간만 화순적벽을 개방했지만, 방문객은 8364명에 달했다.

화순군은 화순적벽 진출입에 대한 관리권이 군에 이양되면서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전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화순적벽은 버스투어뿐만 입장할 수 있다. 지난해는 수·토·일요일에만 개방했지만, 올해는 화·목·금·토·일요일 닷새로 개방기간을 확대했다.

화순군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31일 ‘동북담 수질 개선 및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적벽으로 진입하는 임시도로 5km 관리를 화순군에 맡기기로 했다. 적벽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관리는 기존처럼 광주시가 갖는다.

올해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버스에 바로 타서 적벽으로 갈 수 있는 ‘적벽 셔틀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버스투어’도 그대로 운영한다. 화순읍 이용대체육관에서 출발하는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오는 25일부터 11월2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행한다.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시로, 1일 2회 운행한다. 버스투어를 하는 데 3시간 정도 걸린다.

한 회당 60명(2대)까지 탈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1인당 1만원이다.

‘적벽 셔틀버스’ 탑승 장소는 화순읍 주차장, 이서커뮤니티센터, 화순적벽 입구 등 3곳이다.

매주 화·목·금·토·일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0분 간격이다.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로, 한 회당 30명(1대)까지 탈 수 있다. 화순읍에서 타면 7000원, 이서커뮤니티센터·화순적벽에서 타면 5000원의 요금을 내면 된다.

화순적벽을 오가는 버스는 화순적벽 문화제(4월 28일~30일)와 실랑민 애향축제(11월4일), 적벽도로 확포장 공사기간에는 운영을 멈출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천하제일경 적벽을 쉽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벽뿐 아니라 우리 화순에 대한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을 가득 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나주시, 여성농업인 건강 챙긴다

근골격계질환 등 특수건강검진비 최대 20만원 지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여성농업인들의 손길이 분주해 지고 있다. 나주배 재배 농가가 배를 수확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고된 영농 작업으로 각종 질환이 염려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51세부터 70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나주시는 5월부터 해당 연령대 여성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진은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폐활량’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며, 농작업 관련 질환 조기진단과 전문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흡수 연도 출생자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적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농업인은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

특수건강검진 지원 신청은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런 사업이 고된 농작업과 가사 노동으로 지쳐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 천관산 산림문화체험 3년만에 재개

숲 체험·목공예 체험 등



천관산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들이 숲 체험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은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천관산 숲 탐방로에서 숲 체험과 목공예 체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천관산 산림문화체험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중지돼왔다.

해발 723m 천관산은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힌다. 봄에는 진달래꽃과 얼레지꽃, 여름에는 나리꽃, 가을에는 억새, 겨울에는 동백림과 비자림으로 유명하다.

천관산자연휴양림에서 마련한 산림문화 체험에는 동백 브로치, 손수건, 나무 목걸이 만들기 등이 있다. 숲 해설사가 천관산 휴양림을 소개하는 해설 교육도 있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담당자는 “앞으로 천관산에 균력을 이루는 동백림과 비자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국립천관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텃밭체험농장 선착순 무료 분양

영천주공아파트 인근 160세대

장성군이 이달 말까지 텃밭체험농장을 무료 선착순 분양한다.

농장은 장성을 영천주공아파트 인근에 모두 160세대 분양이 준비돼있다.

장성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구당 1구획만 주어지며, 1구획 면적은

9㎡이다. 텃밭을 분양받으면 오는 4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유롭게 가꿀 수 있다. 텃밭체험농장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1-390-8441)를 직접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텃밭체험농장은 가족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지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 나비축제 준비 한창
함평군 관계자들이 나비대축제를 대비해 친환경농업관에 선보일 호박터널, 여주, 수박, 옥수수 등 100 여종의 농작물을 관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엑스포공원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함평군 제공>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생에 10만원 축하금

담양군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에게 10만원 상당 지역 화폐를 입학축하금으로 준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집중 신청 기간(~4월28일)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보호자가 입학생 주소가 등록된 읍·면

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초등학교 자녀 입학을 앞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담양만의 특색있는 교육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